

“세상을 녹꽃이 뒤덮어버리게 된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몰래 생채기를 냈기 때문일 거고, 그 상처에 바람이 닿았기 때문일 거고, 파슬파슬한 붉은 가루가 땅에 떨어져서 마침내 꽃을 피웠기 때문일 거야. 배어지지도 않고 썩어 넘어지지도 않는 붉은 꽃, 쇠꽃 말이야.”(《쇠꽃》)



《쇠꽃》 정길연 지음 | 문이당 | 300쪽 | 값 9,000원

## ‘존재하는 존재’로

##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떳떳한 남루’

글·세계일보 문화부 차장·소설가

정길연 (42) 소설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남루하지만 단단하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남루하고, 그 상처를 묵묵히 견디어내는 힘이 남다르기 때문에 강인하다. 정길연이란 이름을 대중들에게 널리 각인시킨 장편 《변명》의 주인공을 보자. 태희는 남편이 자신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면서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우는 모습에 전율한다. 우유부단한 남편은 아내와 정부 사이를 오가며 둘 다 취하려 한다. 태희는 여느 여자들처럼 길길이 뛰지도 않고 묵묵히 참아내다가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린다. 태희에게 남편이 던지는 적반하장의 대사. “당신이란 여간 의무에만 충실한 타입이지. 아주 순종적이어서 독기라곤 없는 듯이 보이지만, 글썽, 당신의 본모습은 그게 아냐. 그악스럽게 덤벼드는 여자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여자지.”

정길연씨가 이번에 새로 펴낸 소설집 《쇠꽃》의 표제작에 등장하는 여인도 《변명》의 태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희는 ‘노블팰리스’에 사는 부잣집 노파의 몸종 역할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선희에게 기생하는 날건달이 있다. 그 건달은 선희를 이용해 노파의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낸 뒤 혼자 도망쳐 버린다. 상류층의 삶과 달동네의 삶이 선연하게 대비되면서 선희의 남루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게다가 남자라고 하나 의지해 보려 했던 인사마저 그녀를 배신해 버렸으니, 남루의 극점이다. 그러나 정길연이 그려내는 선희라는 여자의 캐릭터는 그리 만만치 않다. 그

녀는 결코 그 남루로 말미암아 '배어지지 않고 썩어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에서 꽃을 피워낸다. 정길연의 그 꽃은 물을 주지 않아도 지지 않는 '종이꽃'이었다가, 이제는 급기야 '쇠꽃'이 되었다. 상처를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꽃. 이번 소설집에는 아예 제목을 '남루를 짓다'로 정한 단편도 수록돼 있거니와, 이 단편의 주인공 여성의 캐릭터도 위에 언급한 류와 다르지 않다. 겉보기에 주인공 여성은 시댁이나 남편의 부당한 대접에도 전혀 불만을 내색하지 않는 착하다착한 주부일 따름이다. 시누이가 이혼을 하면서 맡긴 아이까지 키워내면서도 참아냈다. 그러나 《변명》의 태희도 그랬지만, 내압의 한계점에 이르면 폭발한다. 그 한계점이란 인간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일 것이다. 수선스럽지는 않지만 결연하고 차가운 깊이를 지닌 그 폭발은 이기적인 주변 사람들을 일순 당황케 한다. 웬만해서는 뇌관이 작동하지는 않지만 한번 폭발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이 단편에서 그 한계를 건드린 것은 남편과 시댁이 감쪽같이 그녀를 속여 온 사실, 시누이가 맡긴 아이가 남편의 소생이라는 점이였다. 그러나 여인은 결코 그 같은 사실 때문에 폭발하지 않았노라고 자부한다. 그녀는 '존재하는 존재로 살고 싶은' 소망뿐이라며, 전혀 영문을 모른 척하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민다.

그 러 나 모 든 남 루 가  
'꽃'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아예 소멸의 욕구를 느끼게 하는 깊은 절망을 굳이 외면하지는 않는다. 역시 이번 소설집에 수록된 〈페이드 아웃〉이 그렇다.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것이 무기력한 건달이다. 오빠의 아내는 그악스럽기 짝이 없는 여성으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자 사는 주인공 여자에게 끊임없이 돈을 강요한다. 보험회사에 다니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여자는 그 요청을 다 들어주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다시 그 월세마저 포기해야 하는 막다른 궁지까지 몰린다. 직장의 남성들은 일을 핑계로 그녀의 몸을 탐하고, 추문이 퍼져나가 여자는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 그녀는 "생의 무대에 검은빛 우단의 걸을 가진 어둠의 막이 내려지는 것, 그 어둠 커커이 휘발성 알코올처럼 흩어져 자취 없어지는 것, 그런 완전한 소멸의 자유"를 꿈꾼다. 〈쇠꽃〉에서 결연히 다졌던 생의 의지조차 이쯤에 이르면 절망 그 자체일 뿐이다. 정길연에게 왜 당신의 소설 속 인물들은 그다지도 고통스러운가, 물었다. 그녀는 반문했다. "그것이 삶의 조건 아닌가." 맞는 말이다. 주어진 고통의 환경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소설이란 그들의 처지로 내려가 눈높이를 맞춘 다음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많으며 동병상련의 위로를 전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정 길 연 의 소 설 들 이 여 성 과 남 성 의  
대 결 관 점 으 로 일 관 하 는 것 은 아 니 다 .

〈꿈속의 천년〉에서 여자는 하루아침에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린 남편을 찾아 헤맨다. 그 과정에서 노숙자들을 만나는데, 여자는 삶의 무의미함에 중독되어버린 그들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아닌 어두컴컴한 존재의 깊숙한 구멍을 본다. 그러나 '도둑맞고 사는 심정'이나 '억울함' 같은, 생의 남루에 천착하는 태도는 전체적으로 여일하게 관통한다. 존재의 남루를 한 꺼풀 벗고, 보다 소란한 생의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들여놓기 위해 정길연은 작가의 말에서 이런 말을 했다.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깨끗하게 잊히길. 그래야 살아 내야 할 시간들, 써내야 할 글들을 온전히 머릿속에 들여놓을 수 있을 테니까. ...어쩌자고 글이 달라질 것 같다는 장담을 해버렸다. 무턱대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길연은 1984년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데뷔했으나 문단에 나온 지 벌써 20년째 접어든 중견이다. 장편소설만 《내게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던가》, 《변명》, 《사랑의 무게》 등 5권을 펴냈고, 소설집도 《종이꽃》을 비롯해 3권을 냈다. 연륜이 쌓인 만큼 요즘 여성작가들에게서 쉬 발견할 수 없는 문장의 밀도와 삶의 녹진한 체험이 녹아드는 서사가 녹록치 않다. 이번 소설집에는 앞에 언급한 작품들 외에도 〈연〉, 〈분실물〉, 〈손〉, 〈몸살〉 등 모두 8편의 단편들이 수록됐다. 그동안 써낸 단편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들이다. 단편의 양이 쌓이는 족족 무책임하게 소설집으로 배설해 내는 경박한 태도와는 다른 정길연만의 미덕이기도 하다. **한**